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1.5도 상승의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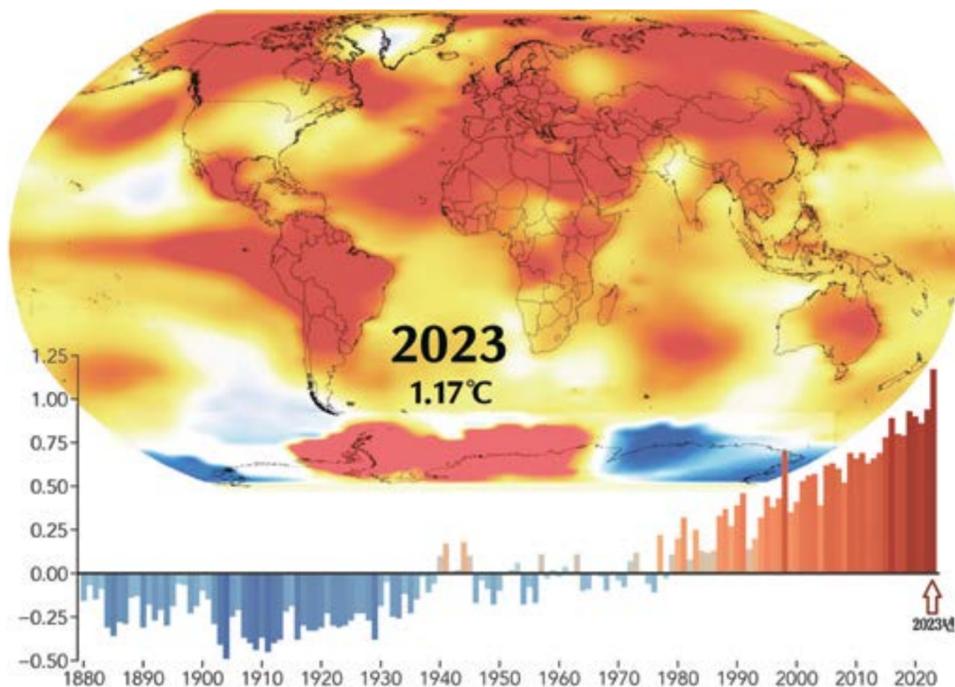
뉴욕에 있는 나사(NASA)의 고다드 우주 연구소(GISS)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2023년 여름은 1880년에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지구에서 가장 더웠다고 한다. 1951년과 1980년 사이의 여름(6월, 7월, 8월) 평균 온도보다 섭씨 1.17도 더 높은 것을 최근 NASA의 기록은 보여주고 있다. 이 새로운 기록(섭씨 1.17도 상승)에 따른 이례적인 더위가 전 세계의 많은 지역을 휩쓸고, 캐나다와 하와이의 치명적인 산불을 악화시켰고, 남미, 일본, 유럽, 미국의 뜨거운 폭염을 불러왔고, 이탈리아, 그리스, 중유럽의 극심한 강우(降雨)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빌 넬슨 NASA국장은 성명을 통해 "2023년 여름의 기록적인 기온은 단순히 숫자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애리조나와 미국 전역의 폭염에서부터 캐나다 각지의 산불, 유럽과 아시아의 극심한 홍수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전 세계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넬슨은 현재의 기후 변화의 영향은 우리의 행성과 미래 세대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노선 1.5°C

기상 관측 이래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17°C를 넘어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순히 '관측이래'를 넘어, 2000년의 세월보다 더, 과거의 오랜 시간 동안 올여름과 같은 적은 없었다. 그 17°C의 벽은 2023년 7월 3일에 깨졌고, 7월 13-15일을 제외하고는 8월 첫 주까지 17°C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지금 이러한 수준의 기온은 불과 최근 30년 평균과 비교해도 1°C 안팎이나 높은 수준이다.

향후 5년 안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



위의 차트는 1880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2023년 올여름이 가장 더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https://svs.gsfc.nasa.gov/14407

다는 세계기상기구(WMO)의 경고가 나왔다. 1.5도는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기후 변화협약을 통해 합의한 지구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이다.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총회가 열렸는데, 그 전에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의 한계치를 2°C로 했던 것을 1.5°C 이내로 의견을 모았던 것을, 송도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이 총회에서 지구의 평균기온을 한계치 1.5°C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 등 국

제 사회는 해운산업 온실가스 규제의 하나로 탄소를 배출하는 선사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장 기반 조치(MB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D) 김한나 전문연구원은 최근 펴낸 'IMO 시장 기반 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탄소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이 한 해 내는 관련 비용은 최대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약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1.5°C를 넘어서게 되면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해도 온실가스를 다시 감축할 수가 없다고 한다. 1.5도 상승하면 빙하가 급속히 녹아 해

수면의 평균 수위가 높아져 해안가 도시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고 산호초도 해수 온도 상승으로 백화현상을 띠면서 거의 멸종할 것이다. 기름과 폭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에 밀려버 수확량은 감소하게 되고 이에 굶어 죽거나 10억 명 이상이 영양실조 증상을 보일 것이다. 여름철에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한 달 내외로 지속되기에, 습도가 높은 바깥에서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피부에서 열을 방출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전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정도의 더위를 매년 20일 이상 버텨야 할 것이다.*

백택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7> “금식기도와 반대 생활”

여러분들 이제 금식기도를 해 본 사람은 알지만 한 3일만 금식을 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비가 오는 것이다. 제일 고비가 3일인데 이 고비만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금식기도를 딱 먹듯 했던 얼마나 금욕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다는 것을 그거 하나를 봐

서도 입증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일 하기 싫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또한 졸리면 잠을 안 자고 무엇이 먹고 싶으면 먹지 않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대 생활을 하게 되니까 바로 마귀의 영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더 약해졌던 것이다.*

이기는 삶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사업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듣는 기술이 없이는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성공한 전문직업인들은 남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경향과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또한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업무상의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는 말의 극히 일부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 연구결과가 밝혀주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 여러 해를 보낸다. 그러나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은 거의 배우지 않는다. 다행한 것은 경청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감정을 억제하라. 감정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감정은 우리가 듣는 말을 왜곡시키고 귀에 들리는 말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어떻게 대답할까 걱정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좀 더 잘 알아듣게 된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잠깐 머뭇머뭇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장애가 되는 또 다른 요인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을 '상사', '동료', '부하'로 분류하는 것이다. 상사의 말은 집중하여 듣고 동료나 부하직원의 말은 흘려듣는다면 이 또한 의사소통의 비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셋째, 더욱 적극적으로 들어라.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훌륭한 대화를 이끄는 비결이다.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는 "음" "저런!" "그래서요?" "왜요?" 등의 말은 대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또한 상대방의 수준과 성격, 취미 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넷째,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점차 중요한 정보는 얻지 못할 수가 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해야 한다. 자기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킨 후에야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마침내 그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사항들을 정리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먼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려는 것이지 않으면 남의 말을 좀 더 잘 알아듣게 된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잠깐 머뭇머뭇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승리한 날

1980년 10월 15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승리하였다. 이로써 죽음의 세상이 끝나고 불사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첫 실마리가 되어 천지도수가 돌아가는 대로 불사영생의 신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은 간단치 않은 우여곡절과 고난을 거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

격암유록 생초지락에 "금동유녀 천군사 탄금일성 청아곡(金童玉女 天君士 彈琴一聲 淸雅曲)"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금동유녀 천군사인 궁공을을 정도령의 거문고 타는 소리 청아하기 그지없도다'라는 말로서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진리 말씀에 마음속의 마귀가 없어져서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금동

유녀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격암유록의 구조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의 사정을 알 수 있으리라. 유녀에서 옥(玉)은 지존자인 하늘임금을 상징하고 녀(女)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형한 글자로서 격암유록에서는 궁공(弓弓)을 의미하고 있다. 유녀가 아이를 낳아 기르니 바로 금동이 되는 것이다. 금(金)은 금운(金運), 가을, 인생추수, 신천 세계 등을 의미한다. 동(童)은 아이를 말하니 유녀의 영적 아들이 되는 것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유녀 즉 궁공의 하나님이 전도관(傳道館)을 세워 유불선 삼도 합일의 도를 을을(乙乙)이 되는 금동에게 전하니 금동은 그 도를 완전히 받아 궁공인 유녀와 합일을 이루어 '금동유녀 궁공을을'이 된다. 곧 심승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성경 계시록 12장 1절에도 같은 의미의 구절이 있다.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잠자 찰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 '해를 입은 여인이 유녀, 궁공의 하나님이고 아들이 금동, 을을이다. 만국을 다스리게 되니 왕중왕으로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도를 받는다고 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심허족수(心虛即受道)라고 마음에 잡힌 것이 없고 텅 비어 있어야 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된 욕심이 없고 그 마음이 눈과 같이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도를 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수도와정이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역사이므로 신선의 운을 받는 자는 곤이지지(困而知之)라고 했던 것이다. 심신이 피곤하고 노곤한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깨닫는 것을 말한다. 2면에 계속

正道令の五大業績

全世界の人びとよ 韓國に注目しよう!!

大昔、人は神様だった。その世界は死が無く、涙も苦痛も無く、時間と空間の制約も受けず、「あなた」と「わたし」の區別も無かった。一つである神様の世界、喜びと幸福が満ち溢れ、善だけが存在する永生の世界だった。その世界から遠ざけられ、人びとは悪魔の姿に變えられ、いつしか故郷を忘れ果て、神様であった事すら知らずに過ぎて居るのである。今、私達こそその事を教え、再びその世界に導いて下さる救い主、正道令とも呼ばれる方が韓國に出現された。罪に死ぬ邪道ではなく、不義をさばき、生きて永生する正道に向って来るよう號令される正道令の出現である。

正道令が今日までに成し遂げられた偉業を確認してみよう。

- 1) 世界の共産主義を没落させた。
- 2) 韓國を襲う台風を防いでいる。
- 3) 韓國の梅雨を止め、水の災害を防いでいる。
- 4) 42年間連続の豊年を実現させている。
- 5) 韓國には決して戦争を起らないようにしている。

これらの五大業績は、1981年に正道令が初めて出現された時の公約である豫言の言葉である。人間の力では絶対に不可能だと考えられて来たこれ等の出来事は、今日までこの世の誰が想像することが出来たであろうか。42年を経過した今、ただ一つの間違ひもなく現実的に成就した事実が誰が反論否定できよう。これらの事は全人類に永遠の平和と幸福をもたらす爲に、最も必要な基本的作業であり、不滅の不死永生を成し遂げて、地上の樂園を建設する爲の礎石なのである。*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